

위진 남북조와 북위의 한화 정책

중2 역사1 · 대치동 재우쌤

한나라가 무너진 뒤 중국에서는 여러 나라가 경쟁했어요.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옮겨 간 사람도 있었고, 북쪽에서 새 나라를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와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단원의 질문

1. 분열의 시작

- Q01** ‘위진 남북조’는 한 나라의 이름인가요?
- Q02** 후한이 무너진 뒤에는 왜 곧바로 안정된 나라가 생기지 않았나요?
- Q03** 삼국을 통일한 진은 진 시황제의 나라가 다시 생긴 것인가요?
- Q04** 교과서에 나오는 ‘화북’과 ‘강남’은 어디인가요?
- Q05** 북방 민족은 후한이 망한 뒤 한꺼번에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 Q06** ‘5호 16국’은 다섯 민족이 정확히 열여섯 나라를 동시에 세웠다는 뜻인가요?

2. 남과 북

- Q07** 남조와 북조는 오랫동안 그대로 있던 두 나라였나요?
- Q08**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옮겨 가자 강남의 농업은 왜 발전했나요?

3. 북위의 개혁

- Q09** 북위가 화북을 통일했다면 중국 전체를 통일한 것인가요?
- Q10** 북위 효문제에 왜 한화 정책을 추진했나요?
- Q11** 효문제는 왜 수도까지 뤼양으로 옮겼나요?
- Q12** 말과 옷, 성씨를 바꾸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 Q13**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한화 정책에 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 Q14** 한화 정책이 문화 융합을 도왔다면, 모든 문화가 똑같이 존중받았다는 뜻인가요?
- Q15**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문화도 주고받았나요?
- Q16** 북위는 왜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균전제를 실시했나요?
- Q17** 균전제의 ‘균’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을 영원히 가졌다는 뜻인가요?
- Q18** 땅을 받은 농민에게는 이익만 있었나요?

4. 넓게 보기

- Q19** 북조를 배우다가 왜 돌궐이라는 이름도 나오나요?
- Q20** 위진 남북조 시대는 전쟁과 혼란만 남긴 시대였나요?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 분열의 시작

Q01 ‘위진 남북조’는 한 나라의 이름인가요?

답 아니에요. 후한이 무너진 뒤부터 589년에 남북이 재통일될 때까지, 여러 나라가 등장한 시대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한 집안이 왕위를 이어 가며 다스리는 나라를 **왕조**라고 해요. 한나라는 앞 시기인 **전한**과 뒤 시기인 **후한**으로 나누어 불러요. 후한은 기원후 220년에 멸망했어요. 그 뒤 위·촉·오가 경쟁했고, 진이 잠시 통일했어요. 그러나 다시 분열되어 북쪽과 남쪽에서 여러 왕조가 이어졌어요.

‘위진 남북조’에서 **위**는 위·촉·오 가운데 위나라를, **진**은 그 뒤의 진나라를 가리켜요. **남북조**는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이어진 여러 왕조를 뜻해요. 위·진·남북조라는 세 나라가 차례로 전국을 다스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는 이 긴 분열을 끝내고 589년에 남북을 다시 통일한 왕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는 보통 후한이 멸망한 **220년부터 수가 재통일한 589년까지**를 가리켜요. 그 사이에도 진의 짧은 통일이 있었으므로, 이 기간 내내 똑같이 나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라가 나뉘는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어요.

Q02 후한이 무너진 뒤에는 왜 곧바로 안정된 나라가 생기지 않았나요?

답 황실이 지방을 통제할 힘을 잃고, 군대를 가진 여러 세력이 서로 나라의 주도권을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후한 말에는 황실 안의 권력 다툼이 심해졌어요. **외척**은 황제의 어머니나 아내 쪽 친척이고, **환관**은 궁중에서 황제와 왕실을 가까이 모시던 남성 관리예요. 이들을 비롯한 여러 세력의 다툼으로 정치가 흔들렸어요.

백성의 생활도 어려워졌고, **황건적의 난**과 같은 큰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봉기는 여러 사람이 기존 지배에 맞서 들고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지배자들이 군사를 모으고 힘을 키웠어요. 이처럼 자기 군대를 바탕으로 한 지역을 장악한 세력을 **군벌**이라고 해요.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졌다고 지방의 군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각지의 군벌은 자기 군대와 땅을 바탕으로 다른 세력과 싸웠어요. 후한의 멸망 뒤 위·촉·오의 삼국이 경쟁하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여기서 삼국은 고구려·백제·신라가 아니라 중국의 세 나라를 말해요.

Q03 삼국을 통일한 진은 진 시황제의 나라가 다시 생긴 것인가요?

답 아니에요. 이름의 한국어 발음은 같지만, 세운 집안과 시대가 다른 두 나라예요.

진 시황제의 진(秦)은 한나라보다 앞선 나라예요. 위·촉·오의 뒤에 등장한 나라는 사마씨가 세운 **진(晉)**이에요. 한자가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왕조예요.

먼저 263년에 위가 촉을 멸망시켰어요. **사마씨**는 위나라에서 신하로 일하며 큰 권력을 잡은 집안이에요. 이 집안의 사마염은 265년에 위의 황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넘겨받아 진을 세웠어요. 그래서 위는 진으로 바뀌었고, 남쪽에는 오가 남았어요. 진은 280년에 오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어요.

통일한 뒤에도 진의 왕족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었어요. 북방 계통의 여러 집단도 군사 활동을 벌이며 세력을 키웠고, 진은 북쪽을 안정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어요. 311년에는 북방 집단이 세운 나라의 군대에 수도 **뤄양**을 빼앗겼어요. 진의 황실은 **장안**에서 나라를 이어 가려 했지만, 316년에는 장안마저 함락되어 무너졌어요. 장안은 오늘날 시안에 해당하는 도시예요.

남쪽으로 옮겨 간 진의 황족은 317년에 오늘날 난징에 해당하는 **건강**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어 갔어요. 앞의 진을 **서진**, 남쪽에서 이어진 진을 **동진**이라고 불러요. 서진의 중심 도시였던 뤼양보다 건강이 동쪽에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남쪽으로 옮겨 갔으면서도 동진이라고 부르는 까닭이에요. 이렇게 북쪽의 분열과 남쪽 왕조의 역사가 나란히 이어졌어요.

Q04 교과서에 나오는 ‘화북’과 ‘강남’은 어디인가요?

답 이 단원에서 화북은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이고, 강남은 창장강 남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황허강은 중국 북부를 흐르는 큰 강이고, **창장강**은 그보다 남쪽을 흐르는 큰 강이에요. 창장강은 양쯔강이라고도 불러요. **유역**은 어떤 강과 그 강으로 흘러드는 물줄기 주변의 지역이에요. 여기서 강남은 서울의 강남을 뜻하지 않아요.

화북에서는 북방 계통의 여러 세력이 나라를 세우고 경쟁했어요. 강남에는 북쪽의 전쟁을 피해 옮겨 간 사람들이 많았고, 동진과 그 뒤 남조 왕조들의 기반이 자리 잡았어요.

지역	위치를 설명하는 기준	이 시대의 중요한 변화
화북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쪽	여러 세력의 경쟁, 북위(선비족이 세운 나라)의 화북 통일과 통치 제도 정비
강남	창장강 남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	북쪽 사람들의 이주, 농경지와 생산의 확대

화북·강남과 주요 도시의 위치



황허강과 창장강, 화북·강남과 주요 도시의 위치를 나타낸 모식도예요. 화북은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이고, 강남은 창장강 남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건강은 뤼양보다 동남쪽에 있고, 장안은 뤼양보다 서쪽에 있어요. 평성에서 뤼양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494년에 북위가 수도를 옮긴 방향이에요. 강의 모습은 간략하게 나타냈으며, 화북·강남의 표시는 왕조의 정확한 국경을 뜻하지 않아요.

Q05 북방 민족은 후한이 망한 뒤 한꺼번에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답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동하고 정착한 집단도 있었으며, 이동한 시기와 까닭도 서로 달랐어요.

이 단원에서 **북방 민족**은 중국의 북쪽과 서북쪽 일대에 살던 여러 집단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의 나라나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진 한 집단이 아니었어요.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이 중요한 집단도 있었지만, 농사를 짓거나 유목과 농경을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나라 때부터 일부 집단은 국경 안쪽으로 옮겨 와 살았어요. 전쟁이나 생계 문제로 이동하기도 했고, 중국 왕조가 이들을 옮겨 살게 하거나 병사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장성**은 북쪽의 공격을 막기 위해 길게 쌓은 방어용 성벽이에요. 후한이 무너진 어느 날 모든 사람이 갑자기 장성을 넘어온 것은 아니에요.

중양의 힘이 약해지고 진의 왕족들이 다투자, 이미 들어와 있던 집단과 새로 성장한 세력이 나라를 세울 기회를 얻었어요. 따라서 이 시대의 변화에는 북방 세력의 군사 활동뿐 아니라 중국 왕조 내부의 권력 다툼도 함께 작용했어요.

Q06 ‘5호 16국’은 다섯 민족이 정확히 열여섯 나라를 동시에 세웠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여러 북방 집단과 한족이 북쪽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경쟁하던 시기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5호는 보통 흉노·선비·갈·저·강이라는 다섯 집단을 가리켜요. 여기서 ‘호’는 당시 한족 쪽에서 북방 계통의 여러 집단을 부르던 말이에요. **한족**은 중국에서 한어와 한자 문화 등을 이어 온 큰 집단을 가리키며, 한나라라는 왕조와 같은 뜻은 아니에요.

16국은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나라들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이름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고, 모든 나라가 같은 때에 함께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북방 집단이 세운 나라뿐 아니라 한족이 세운 나라도 있었어요.

한 나라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 안에는 출신이 서로 다른 주민들이 함께 살았어요. 따라서 나라를 세운 지배자의 출신만으로 그 나라 백성 모두가 같은 집단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 남과 북

Q07 남조와 북조는 오랫동안 그대로 있던 두 나라였나요?

답 아니에요.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여러 왕조가 바뀌며 이어졌고, 북쪽이 다시 여러 나라로 나뉘는 때도 있었어요.

남조는 동진이 끝난 420년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이어진 여러 왕조를 말해요. **북조**는 북위와 그 뒤 북쪽에서 이어진 여러 왕조를 묶은 말이에요. 남조라는 이름의 황제 집안 하나와 북조라는 이름의 황제 집안 하나가 계속 맞선 것은 아니에요.

북위도 계속 하나의 나라로 남지는 않았어요. 북위의 지배 세력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534년에 **동위**, 이듬해인 535년에 **서위**가 세워졌어요. 동위의 땅에서는 **북제**가, 서위의 땅에서는 **북주**가 뒤이어 들어섰어요. 동위·서위와 북제·북주는 이렇게 북위 뒤의 북쪽 왕조들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남쪽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온 한족의 유력 가문과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세력이 함께 정치와 경제를 이끌었어요. 북쪽에서는 선비족 등 북방 계통의 지배층이 여러 출신의 주민을 다스렸고, 한족의 관리와 유력 가문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유력 가문**은 재산이나 관직 등을 바탕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집안을 말해요.

남쪽과 북쪽은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사신과 물건, 기술도 오갔어요. 정치적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문화와 사람의 이동까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에요.

남쪽과 북쪽의 흐름

연도	북쪽의 주요 세력·사건	남쪽의 주요 세력·사건
220년 이후	후한 멸망, 위 성립	촉·오가 잇따라 성립하여 위와 경쟁
263~265년	위가 촉을 멸망시킴(263), 사마씨가 위를 대신해 진(晉)을 세움(265)	오가 계속 존재
280년	진이 남북을 통일	오가 멸망하고 진의 통치를 받음
304년	여러 나라가 세워지며 5호 16국 시대 시작. 아직 서진도 존재	서진의 통치가 이어짐
316~317년	장안이 함락되고 서진 멸망(316). 5호 16국의 경쟁은 계속됨	건강에서 동진이 이어짐(317)
420년	5호 16국의 경쟁이 이어짐	동진이 끝나고 남조의 여러 왕조가 이어지기 시작
439년	북위가 화북 통일. 5호 16국 시대가 끝남	남조가 계속 존재
485년	북위가 균전제 실시	남조가 계속 존재
494년	북위가 평성에서 뤼양으로 천도	남조가 계속 존재
534~535년	북위가 갈라져 동위(534)·서위(535) 성립	남조의 여러 왕조가 이어짐
550~557년	동위 → 북제(550), 서위 → 북주(557)	남조의 여러 왕조가 이어짐
577년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키고 북쪽을 통일	남조가 계속 존재
581년	북주 → 수(수가 북주를 대신함)	남조가 계속 존재
589년	수의 통치 아래 남북 재통일	수가 남조의 마지막 왕조를 멸망시킴

서진과 5호 16국의 시기는 처음부터 딱 잘라 나뉘지 않고 일부 겹쳐요. 북위의 개혁에서도 균전제(485)가 뤼양 천도(494)보다 먼저였어요.

Q08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옮겨 가자 강남의 농업은 왜 발전했나요?

답 농사지을 사람이 늘고 북쪽의 기술이 지역의 경험과 만나면서, 농경지와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북쪽의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옮겨 간 사람들을 **유민**이라고도 불러요. 살던 곳을 떠나 떠돌거나 다른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이동으로 강남에서는 농사를 짓고 물길을 정비할 일손이 늘었어요. 이주민은 농기구를 다루는 방법과 농사 경험도 가져왔어요.

강남은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많아 벼농사에 유리한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물이 많다고 저절로 좋은 논이 되지는 않아요. 물이 넘치지 않게 막고,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내며, 농사지를 땅을 일구는 일이 필요했어요. 농사에 쓸 물을 끌어오거나 넘치는 물을 빼내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수리 시설 정비**라고 해요.

강남에는 그전부터 사람이 살며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북쪽 이주민만이 비어 있던 땅을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니에요. 기존 주민의 경험과 새로 들어온 노동력·기술이 함께 작용했어요. 이런 변화는 뒤에 남쪽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바탕이 되었어요. 이때 곧바로 중국의 경제 중심 전체가 남쪽으로 옮겨 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강남에서 농경지를 가꾸는 모습을 나타낸 상상도예요. 왼쪽 사람은 물길을 정비하고, 가운데 사람은 모를 나르며, 오른쪽 사람들은 논에 모를 심고 있어요. 모는 논에 옮겨 심는 어린 벼예요. 이주로 늘어난 일손은 기존 주민들과 함께 이런 농사일과 물길 정비에 쓰였어요.

3 북위의 개혁

Q09 북위가 화북을 통일했다면 중국 전체를 통일한 것인가요?

답 아니에요. 북위는 북쪽의 화북을 통일했지만, 남쪽에는 별도의 왕조가 남아 있었어요.

북위는 선비족의 탁발씨가 세운 나라예요. 선비족은 북방 계통의 여러 집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북위는 **439년**에 화북을 통일했어요. 여러 나라가 경쟁하던 북쪽을 하나의 왕조가 넓게 다스리게 된 거예요.

북위는 위·촉·오 가운데 위나라와도 다른 나라예요. 우리말로 ‘위’가 들어가지만 세운 집안과 시대가 달라요. 또 화북 통일 뒤에도 남쪽의 왕조는 계속 존재했으므로, 북위의 화북 통일과 뒤에 수가 이룬 남북 재통일은 구별돼요.

넓은 농경 지역을 차지한 뒤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통치를 이어 갈 수 없었어요. 여러 출신의 백성에게 세금을 걷고, 관리를 두며, 농업 생산을 안정시키는 제도가 필요했어요. 북위의 개혁은 이런 문제와 연결돼요.

Q10 북위 효문제에 왜 한화 정책을 추진했나요?

답 한족이 많이 사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황제를 중심으로 한 통치 체제를 강화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효문제는 북위가 화북을 통일한 뒤에 나라를 다스린 황제예요. 효문제가 화북을 처음 통일한 것은 아니에요. ‘효문제’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황제가 죽은 뒤 붙인 이름이에요.

한화 정책은 한족의 제도와 언어, 옷차림 등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한 정책이에요. 여기서 ‘한’은 한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한족의 문화를 가리켜요. 북위는 수가 적은 선비족 지배층이 수가 많은 한족 주민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한족의 유력 가문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협조를 얻고 익숙한 제도를 활용하면 넓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효문제는 선비족 지배층을 한족 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황제와 중앙 정부의 힘을 키우려 했어요. 중요한 권한이 황제와 중앙 정부에 모이는 것을 **중앙 집권**이라고 해요. 한화 정책은 단순히 다른 옷이나 말이 마음에 들어 따라 한 일이 아니라 통치와 관련된 선택이었어요.

Q11 효문제는 왜 수도까지 뤼양으로 옮겼나요?

답 한족의 정치·문화 중심지에 통치의 기반을 두고, 한족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예요.

수도는 황제와 중앙 정부가 자리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 도시예요. 수도를 옮기는 일을 **천도**라고 해요. 효문제는 **494년**에 수도를 **평성에서 뤼양으로** 옮겼어요. 평성은 오늘날 다둥에 해당하는 북쪽 도시이고, 뤼양은 그보다 남쪽의 황허강 유역에 있는 도시예요. Q04 지도의 평성에서 뤼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이 천도를 나타내요.

뤼양은 앞선 중국 왕조들이 수도로 삼았던 정치·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으로 통치의 중심을 옮기면 한족의 유력 가문과 관리를 가까이하며 농경 지역을 다스리기 쉬웠어요. 북쪽의 오래된 지배 기반에서 벗어나 개혁을 추진하려는 뜻도 있었어요.

천도는 황제의 집 한 채만 옮기는 일이 아니예요. 관청과 관리, 그 가족 등도 함께 이동하므로 정치의 중심과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어요. 다만 뤼양으로 옮긴 것은 북위 안에서 수도를 옮긴 일이에요. 남조에 항복하거나 강남으로 나라 전체를 옮긴 것은 아니예요.

Q12 말과 옷, 성씨를 바꾸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답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옷차림을 갖추며 서로 결혼해 친척이 되면, 선비족 지배층과 한족 가문이 함께 나라의 일을 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효문제의 한화 정책에는 생활 모습과 관련된 조치가 많았어요. **성씨**는 가족이나 집안의 계통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혼인**은 결혼을 뜻해요. 이런 것은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누구와 한 집안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지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바꾼 대상	대표적인 조치
언어	조정에서 한족의 언어를 쓰게 함
옷차림	한족식 의복을 입게 함
성씨	선비족 성씨를 한족식으로 바꾸게 함
혼인 관계	선비족 귀족과 한족 유력 가문의 혼인을 장려함

조정은 황제와 높은 관리들이 나라의 정치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곳을 말해요. 조정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정치적 의사소통의 기준을 맞출 수 있었어요. 황실도 탁발씨에서 원씨로 성을 바꾸었어요. 유력 가문끼리 혼인하면 두 집안이 친척 관계로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 조치들은 당시의 말과 의복·가문 질서를 바꾸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의 중국어 표준 발음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떠올리면 안 돼요. 또 정책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실제로 똑같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북위의 복식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상상도예요. 왼쪽은 좁은 소매와 바지를 갖춘 **북방 계통의 옷차림**, 오른쪽은 넓은 소매와 길게 내려오는 옷을 갖춘 **한족식 옷차림**의 예예요. 효문제는 선비족 지배층에게 오른쪽 같은 한족식 의복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한편 한족 사회에는 왼쪽 같은 북방 옷차림이 퍼지기도 했어요. 옷의 형태를 비교한 그림이며, 두 사람의 민족이나 신원을 정한 것은 아니예요.

Q13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한화 정책에 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답 익숙한 전통을 바꾸라는 요구였고, 수도와 정치의 중심이 옮겨 가면 기존 지배층의 지위도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말과 성씨, 옷차림은 단순한 겉모습만은 아니예요. 자기 집안과 집단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를 바꾸라는 명령은 일부 선비족에게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어요.

천도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부담도 있었어요. 북쪽의 기존 지배 기반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뽕양의 조정과 한족 가문이 더 중요해지는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반면 개혁에 참여하며 새 지위를 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비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예요.

따라서 한화 정책이 교류와 통치 제도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과, 추진 과정에서 강요와 반발이 있었다는 사실은 함께 성립해요. 결과를 설명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겪은 갈등을 지워 버릴 수는 없어요.

Q14 한화 정책이 문화 융합을 도왔다면, 모든 문화가 똑같이 존중받았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효문제의 정책에는 한족식을 따르라는 강요가 있었어요. 정책의 방향과 사회에서 오랫동안 일어난 교류는 구별돼요.

구분	누가 무엇을 받아들였나요?	어떤 성격이 있었나요?
효문제의 정책	선비족 지배층이 한족식 말·옷·성씨를 따르게 함	위에서 정한 한 방향의 변화, 강요가 있었음
사회에서 이어진 교류	한족도 북방의 옷·음식·걸상을 받아들임	여러 방향의 교류, 자기 생활에 맞게 바꾸며 수용

한 집단의 생활 방식을 다른 집단의 방식에 맞추어 바꾸는 것을 **동화**라고 해요. 한화 정책에는 선비족의 말과 옷, 성씨를 한족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동화의 성격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만 자유롭게 고르게 한 정책은 아니었어요.

한편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만나 섞이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Q12 그림의 왼쪽처럼 좁은 소매의 윗옷과 바지를 갖춘 북방 옷차림은 한족 사회에도 전해졌어요. 한족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매나 바지의 폭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효문제가 내린 정책의 방향과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 전체의 변화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문화 교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문화가 융합되었다고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Q15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문화도 주고받았나요?

답 전쟁과 별개로 함께 살고 거래하고 일하는 일이 이어졌고,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과 생활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목 생활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말과 가축, 가죽 등이 나왔고, 농경 지역에서는 곡식과 직물 등을 구할 수 있었어요. **직물**은 실을 짜서 만든 천이에요. 한 지역에 모든 물자가 넉넉한 것은 아니므로, 서로 거래할 이유가 있었어요. 전쟁이 교류를 막는 때도 있었지만 모든 접촉이 영원히 끊긴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한 나라의 군대와 마을, 도시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어요. 이런 접촉 속에서 한쪽 사회에 젖을 가공한 음식 등이 퍼졌어요. Q14의 표에 나온 여러 방향의 교류는 함께 살고 거래하는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입식 생활**은 바닥에 앉기만 하는 생활과 달리 의자처럼 높이가 있는 가구를 이용하는 생활을 말해요. **서역**은 중국의 서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일대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북방·서역과의 교류로 접어서 옮길 수 있는 걸상인 **호상** 같은 앉는 도구가 퍼졌고, 높은 가구를 쓰는 생활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그렇다고 이 시대의 모든 집에 오늘날 같은 의자와 침대가 한꺼번에 갖추어진 것은 아니에요.

Q16 북위는 왜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균전제를 실시했나요?

답 농민이 농사를 지을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도 안정적으로 세금과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균전제는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백성에게 농사지을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예요. 북위는 효문제 때인 **485년**에 이 제도를 실시했어요. 당시에는 효문제를 대신해 정치를 이끌던 **풍 태후**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풍 태후는 효문제의 할아버지와 혼인한 황후로, 할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황후는 황제의 정식 부인이고, 태후는 앞선 황제의 황후나 황제의 어머니 등에게 쓰던 칭호예요. 효문제가 모든 개혁을 혼자 처음 구상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에요.

전쟁과 이주가 이어지면 돌보는 사람이 없는 땅이 생기는 한편, 농사지을 땅을 잃은 사람도 생겨요. 땅과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농업 생산이 줄고, 국가가 걷을 세금도 부족해져요. 북위는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 다시 농사를 짓게 하려 했어요.

땅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국가는 그 사람과 생산을 파악하기 쉬워져요.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걷고 나라에 필요한 노동을 부담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균전제는 땅만 나누는 일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의 경제 기반을 다시 연결하는 제도였어요.

Q17 균전제의 ‘균’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을 영원히 가졌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나이와 성별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량이 달랐고, 일정한 때에 국가에 돌려주어야 하는 땅도 있었어요.

‘균전’이라는 이름을 보면 모든 토지를 똑같이 잘라 누구에게나 나누어 준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 북위의 규정에서는 곡식을 기르는 밭을 여자에게 남자의 절반 넓이만큼 주도록 했어요. 땅이 넉넉한 곳과 부족한 곳의 사정도 같지 않았어요.

곡식을 기르는 밭처럼 나이가 들거나 죽었을 때 국가에 돌려주는 종류가 있었어요. 한편 뽕나무를 심는 땅처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류도 있었어요. 뽕나무 잎은 비단을 만드는 누에의 먹이가 되므로, 나무를 오래 가꾸어야 했어요. 모든 땅의 이용 조건이 똑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또 균전제를 실시했다고 기존의 큰 토지 소유가 모두 사라지거나 실제 재산이 완전히 같아진 것은 아니에요. 제도가 정한 지급 기준과 실제 사람들이 가진 재산은 구별돼요.

Q18 땅을 받은 농민에게는 이익만 있었나요?

답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기반을 얻는 대신 세금과 나라가 요구하는 노동 등의 부담도 졌어요.

땅이 없어 떠돌던 사람이 농사지을 땅을 받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가능성이 커져요. 농민에게는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국가에도 농업 생산이 회복되고 세금을 낼 백성이 늘어나는 이익이 있었어요.

하지만 농민이 거둔 수확을 모두 자기 집에서 쓰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금을 내고, 국가의 공사 등에 동원되는 노동도 부담했어요. 국가가 백성에게 맡기는 이런 노동을 **부역**이라고 해요. 땅을 지급하는 제도는 국가가 사람을 파악하고 의무를 지우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균전제에는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면과 국가의 세금·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면이 함께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땅을 얼마나 받았는지, 부담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어요.

4 넓게 보기

Q19 북조를 배우다가 왜 돌궐이라는 이름도 나오나요?

답 남북조 시대 후반에 성장한 돌궐이 북쪽 초원과 교역로에 큰 힘을 행사해 중국 왕조들과도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교역로는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길이에요. **돌궐**은 6세기 중엽에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성장한 튀르크계 유목 세력이에요. **튀르크계**는 서로 관련된 언어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여러 집단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돌궐은 세력을 넓혀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있는 여러 초원·사막·산지와 도시가 자리한 지역이에요.

돌궐은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던 5세기 전반보다 뒤에 성장했어요. 북위의 다른 이름도 아니고, 북위 효문제의 세운 나라도 아니에요. 남북조 시대는 길었으므로, 교과서의 같은 단원에 나오는 세력이 모두 같은 시기에 전성기를 누린 것은 아니에요.

중국의 북쪽 왕조들과 뒤의 수·당은 돌궐과 싸우거나 협상하고 물자를 주고받았어요. 초원에 강한 세력이 있으면 중국 왕조도 국경과 대외 정책을 그에 맞추어 정해야 했어요. 당시의 국제 관계는 중국 안에서 어떤 왕조가 생겼는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Q20 위진 남북조 시대는 전쟁과 혼란만 남긴 시대였나요?

답 아니에요. 전쟁으로 큰 피해를 겪었지만,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 속에서 지역 경제와 제도·문화도 달라졌어요.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았어요. 농경지가 버려지고 생활이 무너지는 피해도 있었어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이 좋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옮겨 간 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고 살아갈 방법을 찾았어요. 강남에서는 이주민과 기존 주민의 노동·경험이 모여 농업이 확대되었어요. 북위에서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한화 정책과 균전제 같은 개혁을 추진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요소도 만나 변했어요.

이 과정에서 발전한 제도와 경제 기반은 뒤에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 그리고 그 뒤의 당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균전제는 지금 기준 등이 달라지면서 수·당에서도 이어졌어요. 분열의 피해와 새로운 변화는 같은 시대에 함께 나타날 수 있었어요. ‘분열되었다’는 말만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확인 문제

확인 01

‘위진 남북조’의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한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여러 왕조가 경쟁한 시대예요.
- ② 후한이 무너진 뒤 여러 왕조가 등장하고 바뀐 시대예요.
- ③ 위나라가 남쪽과 북쪽의 왕조를 모두 통일한 시대예요.
- ④ 남조와 북조가 한 황실 아래에서 번갈아 통치한 시대예요.

확인 02

후한 말 군벌이 성장한 과정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지방 세력들이 황건적의 난을 함께 일으켜 한 군벌로 모였어요.
- ② 지방 세력들이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 각자 군벌이 되었어요.
- ③ 지방 세력들이 군대 없이 재산만 모아 군벌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 ④ 지방 세력들이 농민 봉기를 진압하며 군사를 모아 힘을 키웠어요.

확인 03

삼국을 통일한 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사마씨가 세웠으며, 진 시황제의 진과는 다른 왕조예요.
- ② 진 시황제가 세웠으며, 한나라보다 앞서 삼국을 통일했어요.
- ③ 효문제가 세웠으며, 선비족이 화북에 세운 북위와 같아요.
- ④ 남쪽에서 시작했으며, 북쪽으로 옮긴 뒤 동진으로 불려요.

확인 04

빈칸에 알맞은 강 이름을 쓰세요.

화북은 주로 (가: _____)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이고, 강남은 (나: _____) 남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확인 05

북방 집단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모든 집단이 후한 멸망 뒤 같은 시기에 처음 들어왔어요.
- ② 들어온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만 계속했어요.
- ③ 후한이 멸망하기 전부터 일부는 한나라 영역에 정착했어요.
- ④ 이동한 집단들은 한 지배자 아래에서 한 나라를 세웠어요.

확인 06

‘5호 16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여러 나라가 세워졌다 사라졌고, 한쪽이 세운 나라도 있었어요.
- ② 다섯 집단이 각각 세운 나라가 한 나라로 합쳐져 계속되었어요.
- ③ 열여섯 나라가 같은 때 생겨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어요.
- ④ 각 나라의 백성은 모두 그 나라 지배자와 같은 집단 출신이었어요.

확인 07

남조와 북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남조는 진 시황제의 나라이고, 북조는 한나라를 뜻해요.
- ② 남조와 북조는 같은 황제가 나누어 다스린 두 지방이에요.
- ③ 남조와 북조는 각각 한 황실이 바뀌지 않고 다스린 나라예요.
- ④ 남쪽과 북쪽에서 여러 왕조가 바뀌며 이어진 것을 뜻해요.

확인 08

강남의 농업이 발전한 까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비가 많았으므로 물길을 정비할 일손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 ② 늘어난 일손과 농사 경험이 물길과 농경지를 가꾸는 데 쓰였어요.
- ③ 원래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주민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 ④ 주민들이 농사를 그만두고 떠나면서 사용할 논이 더 넓어졌어요.

확인 09

439년 북위의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남쪽의 강남을 통일했고, 북쪽에는 여러 왕조가 남았어요.
- ② 북쪽의 화북을 통일했고, 남쪽에는 별도의 왕조가 남았어요.
- ③ 남쪽과 북쪽을 통일했고, 위진 남북조 시대를 끝냈어요.
- ④ 위·촉·오를 모두 통일했고, 사마씨의 진 왕조를 세웠어요.

확인 10

효문제가 한화 정책을 추진한 목적에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한족 주민을 강남으로 옮겨 선비족만의 나라를 만들려 했어요.
- ② 한족 가문의 협력을 막아 북방의 옛 제도만을 유지하려 했어요.
- ③ 한족의 협력을 얻어 나라를 다스리고 중앙의 힘을 키우려 했어요.
- ④ 한나라 황실에 권력을 넘겨 옛 한나라 왕조를 되살리려 했어요.

확인 11

효문제가 494년에 천도하기 전의 수도와 옮긴 뒤의 수도를 빈칸에 쓰세요.

(가: _____)에서 (나: _____)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확인 12

효문제의 한화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조정에서 선비족의 말만 쓰게 하고 한족의 말은 금지했어요.
- ② 한족 주민에게 선비족의 옷을 입게 하고 한족 옷은 금지했어요.
- ③ 한족 유력 가문과 선비족 귀족이 혼인하는 일을 막았어요.
- ④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식으로 바꾸고 가문 간 혼인을 장려했어요.

확인 13

한화 정책에 일부 선비족 지배층이 반발한 까닭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전통을 바꾸고 생활 터전과 정치적 지위를 잃을까 걱정했어요.
- ② 한족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을 황제가 막았기 때문이에요.
- ③ 옛 수도의 가문만 정치를 맡도록 황제가 보장했기 때문이에요.
- ④ 성씨와 옷차림을 그대로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확인 14

한화 정책과 문화 융합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한화 정책을 실시했으므로 강요를 느끼거나 반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 ② 한화 정책에 강요가 있었으므로 생활 문화의 교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 ③ 한화 정책에는 강요가 있었고, 문화 교류는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 ④ 한화 정책을 실시한 뒤에는 두 문화의 차이가 사라져 같은 생활만 했어요.

확인 15

생활 문화의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전쟁을 한 집단끼리는 그 뒤 물자를 거래하거나 함께 살지 않았어요.
- ② 북방 계통의 사람들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③ 호상이 전해진 뒤 모든 집이 곧바로 오늘날 같은 의자와 침대를 갖추었어요.
- ④ 한족도 북방의 옷과 걸상을 받아들였고, 자기 생활에 맞게 바꾸기도 했어요.

확인 16

북위가 균전제를 실시한 목적에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농민을 농경지에서 떠나게 하여 도시의 상업 활동에만 종사하게 하려 했어요.
- ② 농민이 농사를 다시 짓게 하여 생활 기반과 국가의 세금 수입을 마련하려 했어요.
- ③ 땅을 받은 사람의 세금과 노동 부담을 없애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어요.
- ④ 토지의 지급 조건을 없애 받은 땅을 누구나 자손에게 계속 물려주게 하려 했어요.

확인 17

군전제의 토지 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지급 기준이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달랐고, 돌려주어야 하는 땅도 있었어요.
- ②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땅을 받았고, 가진 재산의 차이도 모두 사라졌어요.
- ③ 받은 땅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국가에 돌려주고, 자손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 ④ 받은 땅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의 땅이 되어 영원히 물려줄 수 있었어요.

확인 18

군전제로 땅을 받은 농민에게 생긴 이익 한 가지와 부담 한 가지를 각각 쓰세요.

이익

부담

확인 19

돌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후한이 멸망하기 전에 강남을 중심으로 성장한 한족 왕조예요.
- ② 북위 효문제의 휘명으로 천도한 뒤 바꾸어 부른 나라 이름이에요.
- ③ 북위의 화북 통일보다 뒤에 성장한 북쪽 초원의 튀르크계 세력이에요.
- ④ 남조의 여러 황실이 북위와 합쳐 중국을 통일하며 세운 왕조예요.

확인 20

위진 남북조 시대에 강남의 농업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 변화 한 가지와 북위가 추진한 개혁 한 가지를 쓰세요.

강남의 농업

북위의 개혁

정답·해설

확인 01

정답 ②

위진 남북조는 후한 멸망부터 수의 재통일까지 여러 왕조가 등장한 시대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진의 짧은 통일도 이 안에 포함돼요.

- ① 한나라보다 앞선 시대가 아니라, 후한이 멸망한 뒤의 시대예요.
- ③ 위나라가 남북 왕조 전체를 통일한 것이 아니에요. 위·촉·오 다음에는 진이 통일했고, 남북의 분열을 끝낸 나라는 수예요.
- ④ 남조와 북조는 한 황실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이어진 여러 왕조를 뜻해요.

다시 읽기 Q01

확인 02

정답 ④

황건적의 난 같은 농민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 세력이 군사를 모았어요.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들은 자기 군대를 바탕으로 지역을 장악하며 군벌로 성장했어요.

- ① 황건적의 난 같은 농민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군사 세력이 커졌어요. 지방 세력들이 함께 봉기를 일으켜 한 군벌로 합쳐진 것이 아니에요.
- ② 군벌이 된다는 것은 황제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군벌은 자기 군대를 바탕으로 지역을 장악한 세력이에요.
- ③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군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그 힘으로 지역을 장악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시 읽기 Q02

확인 03

정답 ①

280년에 삼국을 통일한 진(晉)은 사마씨가 세운 왕조예요. 한나라보다 앞선 진 시황제의 진(秦)과는 다른 나라예요.

- ② 위·촉·오의 경쟁은 후한 멸망 뒤의 일이에요. 진 시황제가 이 삼국을 통일한 것은 아니에요.
- ③ 북위는 선비족 탁발씨가 세운 별도의 왕조예요. 효문제는 북위가 화북을 통일한 뒤의 황제예요.
- ④ 북쪽의 서진이 무너진 뒤 황족이 남쪽에서 나라를 이어 간 것이 동진이에요. 이동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시 읽기 Q03·Q09·Q10

확인 04**정답 (가) 황허강 / (나) 창장강**

화북은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이고, 강남은 창장강 남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창장강은 양쯔강이라고도 불러요. 이 지역 구분이 언제나 남북 왕조의 정확한 국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가)는 ‘황허강’ 또는 ‘황허’, (나)는 ‘창장강’·‘창장’·‘양쯔강’ 가운데 하나를 쓰면 돼요. 같은 강의 한자식 이름인 ‘황하’와 ‘장강’을 각각 써도 맞아요. 두 강의 순서를 바꿔 쓰면 안 돼요.

다시 읽기 Q04**확인 05****정답 ③**

일부 북방 집단은 한나라 때부터 안쪽으로 이동해 살았어요. 전쟁과 생계, 왕조의 이주 조치 등 이동의 배경도 여러 가지였어요.

- ① 후한이 멸망한 뒤 모든 집단이 한꺼번에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 ② 유목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농사를 짓거나 두 생활 방식을 함께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 ④ 북방 집단은 하나의 지배자 아래 모인 단일 집단이 아니었고, 여러 세력이 서로 경쟁했어요.

다시 읽기 Q05**확인 06****정답 ①**

5호 16국 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잇따라 세워지고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에는 북방 집단이 세운 나라뿐 아니라 한족이 세운 나라도 있었어요.

- ② ‘5호 16국’은 다섯 집단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 ③ 열여섯 나라가 동시에 생겨 끝까지 유지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이름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도 있었어요.
- ④ 한 나라 안에 출신이 서로 다른 백성이 함께 살았어요. 지배자의 출신이 백성 모두의 출신과 같지는 않았어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7**정답 ④**

남조와 북조는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이어진 여러 왕조를 묶은 이름이에요. 북위가 갈라져 동위와 서위가 세워졌고, 그 뒤 북제와 북주가 각각 들어섰어요.

- ① 진 시황제의 진과 한은 이 시대보다 앞선 왕조예요. 남조·북조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 ② 같은 황제가 두 지방을 나누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별도의 왕조들이 존재했어요.
- ③ 남쪽과 북쪽 모두 황실이 바뀌었어요. 각각 한 집안이 계속 다스린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7

확인 08**정답 ②**

이주로 늘어난 노동력과 농사 기술이 기존 주민의 경험과 만나, 물길을 정비하고 농경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삽화의 물길 정비와 모 나르기·모심기도 이런 노동을 보여 줘요.

- ① 비가 많아도 물이 넘치지 않게 막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시설과 일손이 필요했어요.
- ③ 강남에는 그전부터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을 이주민이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니에요.
- ④ 논을 넓히려면 땅을 일구고 물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 강남의 발전은 일손과 경험이 늘어난 것과 관련돼요.

다시 읽기 Q08

확인 09**정답 ②**

북위가 439년에 통일한 곳은 북쪽의 화북이에요. 남쪽에는 별도의 왕조가 남아 있었어요.

- ① 북위가 통일한 지역을 남쪽의 강남으로 잘못 바꾸었어요.
- ③ 남북의 재통일은 뒤에 수가 이룬 일이에요. 북위의 화북 통일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 ④ 위·촉·오를 통일한 것은 사마씨의 진이에요. 북위는 그보다 뒤의 다른 왕조예요.

다시 읽기 Q03·Q09

확인 10**정답 ③**

효문제는 한족 주민이 많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한족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력 가문의 협력을 얻으려 했어요. 황제와 중앙 정부의 힘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 ① 한족 주민을 모두 내보내 선비족만의 나라로 만들려 한 정책이 아니에요.
- ② 한족 가문의 협력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려 했어요.
- ④ ‘한화’의 ‘한’은 한족의 문화를 뜻해요. 한나라 황실에 권력을 돌려주려는 정책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0

확인 11**정답 (가) 평성 / (나) 뤼양**

효문제는 494년에 북쪽의 평성에서 그보다 남쪽의 뤼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한족의 정치·문화 중심지에 통치 기반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선택이었어요. 북위 안의 천도였으며, 강남의 남조로 옮긴 것은 아니에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가)는 ‘평성’ 또는 그곳의 오늘날 이름인 ‘다통’, (나)는 ‘뤼양’ 또는 ‘낙양’을 쓰면 돼요. 평성을 ‘핑청’으로 적어도 맞아요. 도시 이름과 이동 방향이 모두 맞아야 해요.

다시 읽기 Q11

확인 12**정답 ④**

효문제는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식으로 바꾸고, 선비족 귀족과 한족 유력 가문의 혼인을 장려했어요. 황실도 탁발씨에서 원씨로 성을 바꾸었어요.

- ① 조정에서 쓰도록 한 말은 선비족의 말이 아니라 한족의 언어였어요.
- ② 지배층에게 한족식 의복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한족 주민에게 선비족 옷만 입히려는 조치가 아니에요.
- ③ 두 집단의 유력 가문이 혼인하는 일을 막지 않고 장려했어요. 혼인은 가문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잇는 방법이었어요.

다시 읽기 Q12

확인 13**정답 ①**

말과 성씨·옷차림은 집단과 가문의 전통과 연결돼요. 이를 바꾸라는 요구에 반발할 수 있었고, 천도로 생활 터전이나 정치적 지위가 달라지는 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 ② 효문제는 한쪽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을 막은 것이 아니라 추진했어요.
- ③ 옛 수도에 기반을 둔 가문의 지위만 보장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의 중심이 뒤편으로 옮겨 가면서 기존 지위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 ④ 성씨와 옷차림을 그대로 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한족식으로 바꾸라는 조치가 있었어요.

다시 읽기 Q13

확인 14**정답 ③**

한화 정책은 한쪽의 문화를 따르게 하는 성격이 강했어요. 한편 사회에서는 한쪽이 북방의 생활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정책의 강제성과 여러 방향의 문화 교류는 같은 시대에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 ① 한화 정책에 강요를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 ②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생활 문화의 교류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 ④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곧바로 같은 말과 옷, 생활 방식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3·Q14

확인 15**정답 ④**

한족 사회에서도 북방 계통의 옷차림과 호상 같은 걸상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생활에 맞게 바꾸기도 했어요.

- ① 전쟁을 벌인 집단 사이에서도 거래와 공동생활이 이어질 수 있었어요. 모든 접촉이 영원히 끊긴 것은 아니에요.
- ② 한족도 다른 집단의 생활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문화 교류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 ③ 높은 가구를 사용하는 생활은 점차 발달했어요. 호상이 전해진 순간 모든 집의 가구가 오늘날처럼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4·Q15

확인 16**정답 ②**

군전제는 농민에게 농사지을 기반을 마련해 주고, 국가가 농업 생산을 바탕으로 세금과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제도였어요.

- ① 농민을 땅에서 떠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농사지을 땅을 주어 정착시키려는 제도였어요.
- ③ 땅을 받은 농민에게는 세금과 부역 등의 의무가 있었어요. 국가의 간섭과 부담을 모두 없애 준 것이 아니에요.
- ④ 토지를 받는 기준과 이용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땅을 누구나 영원히 물려줄 수 있게 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6·Q17·Q18

확인 17**정답 ①**

군전제에서는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어요. 일정한 때에 국가에 돌려주는 땅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도 구별되었어요.

- ②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 재산의 차이가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 ③ 뽕나무를 심는 땅처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류도 있었어요.
- ④ 나이가 들거나 죽었을 때 국가에 돌려주어야 하는 종류도 있었어요.

다시 읽기 Q17

확인 18**예시 답**

이익 농사지을 땅을 받아 생활을 안정시킬 기반이 생겼어요.

부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했어요.

땅을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익과, 국가에 세금·노동 등을 부담하는 의무가 함께 있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이익에는 ‘농사지을 땅을 받았다’·‘생계를 꾸릴 기반이 생겼다’ 가운데 하나를 쓰면 돼요. 부담에는 ‘세금을 냈다’·‘부역을 졌다’·‘국가의 공사에 동원되었다’ 가운데 하나를 쓰면 돼요. 두 항목에 각각 한 가지씩 있으면 되고, 예시와 문장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세금 수입이 늘었다’는 국가의 이익이므로 농민의 이익으로 쓰면 맞지 않아요. ‘부담 없이 땅을 영원히 가졌다’는 답도 맞지 않아요.

다시 읽기 Q16·Q18

확인 19**정답 ③**

돌궐은 6세기 중엽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성장한 튀르크계 세력이에요. 439년 북위의 화북 통일보다 뒤의 일이에요. 중국의 북쪽 왕조들, 뒤의 수·당과도 관계를 맺었어요.

- ① 후한 멸망 이전의 강남 왕조가 아니에요. 시기와 지역, 세력의 성격이 모두 달라요.
- ② 북위가 이름을 돌궐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력이에요.
- ④ 남조와 북위의 황실이 합쳐 세운 왕조가 아니에요.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이에요.

다시 읽기 Q19

확인 20**예시 답**

강남의 농업 이주로 일손이 늘고 농사 경험이 더해져 농경지와 생산이 확대되었어요.

북위의 개혁 균전제를 실시해 농민에게 땅을 지급하고 농업 생산을 회복하려 했어요.

전쟁의 피해가 컸어도 모든 발전이 멈춘 것은 아니에요. 지역 경제와 제도, 생활 문화의 변화가 함께 있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강남에는 ‘농경지 확대’·‘농업 생산 증가’·‘수리 시설 정비’ 가운데 하나를 쓰면 돼요. 북위에는 ‘균전제 실시’ 또는 ‘한화 정책 추진’을 쓰면 돼요. 한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인 튀양 천도, 한족식 언어·의복·성씨의 채택, 유력 가문 사이의 혼인 장려 가운데 하나를 써도 맞아요. 두 지역의 변화가 각각 있어야 하며, 단순히 ‘발전했다’고만 쓰면 어떤 변화인지 알 수 없어요. 강남에 ‘이주민이 늘었다’고만 쓴 답은 농업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부족해요. ‘이주로 농사지을 일손이 늘었다’ 또는 ‘이주민의 농사 기술이 전해졌다’처럼 농업과 연결하면 맞아요.

다시 읽기 Q08·Q10~Q18·Q20